

Econ Snapshot

주요 경제지표 Review | 2024.5.7



Economist 전규연 kychun@hanafn.com

RA 김형균 hyungkyunkim@hanafn.com

미국 4월 비농업 고용: 냉각 신호에도 기다림은 필요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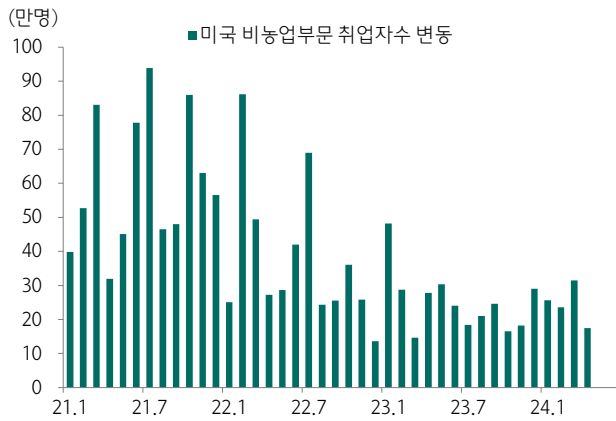
미국 4월 비농업 고용 Review: 조금씩 나타나는 냉각 신호

- 미국 4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은 전월대비 17만 5천 명 증가하며 예상치(24만 명)와 전월치(31.5만 명)를 하회
- 24년 2월 고용은 27만 명에서 23.6만 명으로 -3.4만 명 하향, 3월 고용은 30.3만 명에서 31.5만 명으로 +1.2만 명 상향 조정
- 업종별로는 헬스케어, 사회복지 중심의 고용 증가가 이어졌음. 헬스케어 업종은 외래 의료서비스, 병원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고용이 5.6만 명 증가했으며, 직전 12개월동안도 매월 6만 명 넘게 신규 고용을 창출 중. 사회복지 업종도 3.1만 명의 고용 증가를 유도. 반면 그간 고용 호조를 이끌던 정부와 여가/접객 업종의 기여도는 약화. 정부 고용은 지난 달 7.2만 명에서 4월 0.8만 명으로 줄어들었고, 여가/접객 고용은 지난 달 5.3만 명에서 4월 0.5만 명으로 크게 둔화
- 미국 4월 실업률은 3.9%로 전월보다 +0.1%p 상승했으며 예상치(3.8%) 상회. 경제활동인구 증가(+8.7만 명)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며 실업을 상승을 유도. 영구 실업자수가 서서히 늘어나는 양상. 4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2.7%로 지난 달과 동일, 25-54세의 핵심 경제활동참가율은 83.5%로 +0.1%p 상승
- 미국 4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비 0.2% 상승하며 예상치(0.3%) 하회. 제조업 임금은 지난 달 가파른 상승(0.6%)의 기저효과로 내구재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이 하락했으며, 서비스업 임금은 여가/접객을 비롯한 저임금 업종을 중심으로 서서히 낮아지고 있으나 금융, 전문직 임금 등은 견조해 업종별 차별화 전개 가능성도 상존

고용시장 둔화에도 실제 금리 인하로 연결되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할 듯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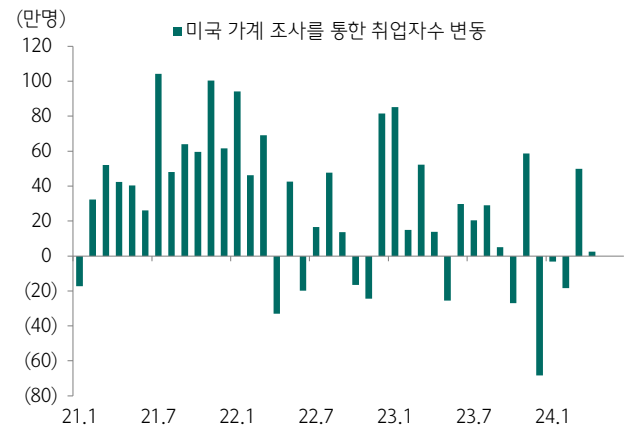
-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선물시장의 미 연준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45.5%에서 48.8%로 상승
- 고용 증가 폭이 10만 명 대로 약화되고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노동시장의 균형 회복을 이끌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. 헬스케어와 사회복지 신규 고용이 전체 고용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민이나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고용 창출을 제외하면 여타 업종들의 고용 증가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줌
- 3월 JOLTs 구인자수 하락(848.8만 명, 전월대비 -32.5만 명 하락)과 실업자 대비 빈 일자리수 둔화(3월 1.32개), 퇴사율 하락 등도 미국 고용시장의 점진적 둔화를 뒷받침하는 요소. 고용시장이 서서히 둔화되고 물가가 안정된다면 올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
- 다만 금번 고용 데이터는 노동시장이 서서히 둔화되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일 뿐,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. 고용시장의 급격한 둔화가 아니라면 미 연준은 고용보다 물가에 초점을 맞출 공산이 큼
- 금리 인하 여건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점진적 둔화가 꾸준히 나타나야 할 것이며, 서비스업 중심의 임금 하락과 물가 안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. 미 연준은 9월 경에 첫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

도표 1. 미국 4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은 전월대비 17.5만 명 증가



자료: Thomson Reuters, 하나증권

도표 2. 가게 조사를 통한 취업자수 변동은 2개월 연속 증가



자료: Thomson Reuters, 하나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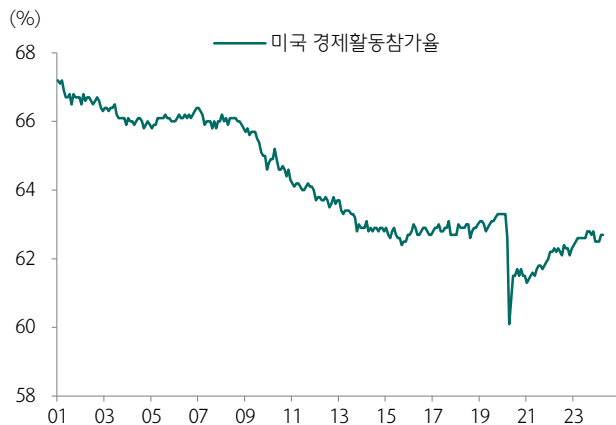
도표 3. 미국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 업종별 증감

(단위: 천명)

		2024-04	2024-03	2024-02	3MA
비농업부문 취업자수 변동		175	315	236	242
민간	재화생산	167	243	181	197
	광업	14	39	15	23
	건설	-3	3	0	0
	제조업	9	40	24	24
	서비스업	8	-4	-9	-2
	도매업	153	204	166	174
	소매업	10	10	-4	6
	운송	20	15	23	20
	유틸리티	22	6	31	20
	정보	0	-1	3	1
	정보	-8	4	-3	-2
	금융	6	5	-7	1
	전문 및 경영서비스	-4	10	6	4
	교육 및 헬스케어	95	88	80	88
	여가/접객	5	53	26	28
	기타	7	13	10	10
정부		8	72	55	4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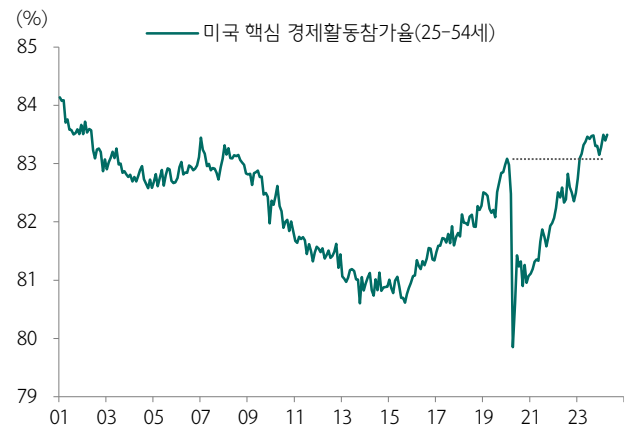
자료: Thomson Reuters, 하나증권

도표 4. 미국 경제활동참가율은 62.7% 유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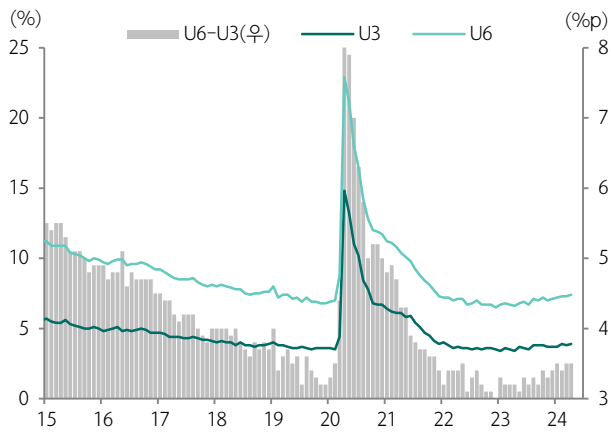
자료: Thomson Reuters, 하나증권

도표 5. 미국 핵심 경제활동참가율은 83.5%로 소폭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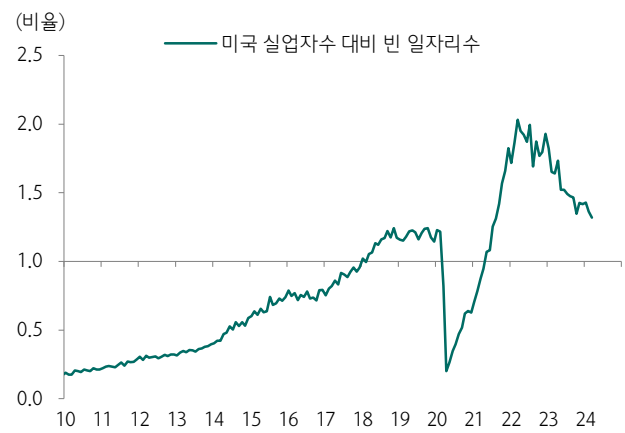
자료: Thomson Reuters, 하나증권

도표 6. 미국 4월 실업률은 3.9%로 소폭 상승



자료: Thomson Reuters, 하나증권

도표 7. 미국 실업자 대비 빈 일자리수는 1.32개 수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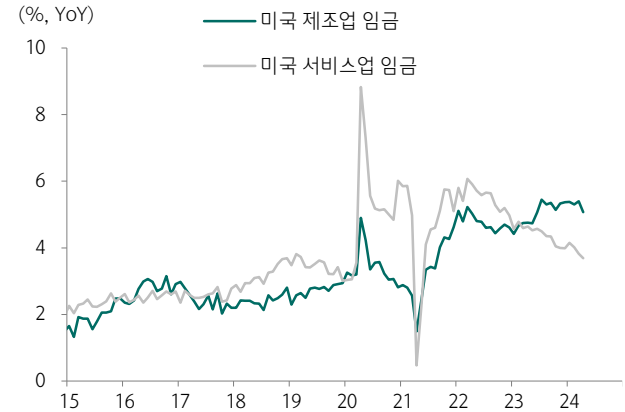
자료: Thomson Reuters, 하나증권

도표 8. 미국 4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비 3.9%로 둔화



자료: Thomson Reuters, 하나증권

도표 9. 제조업과 서비스업 임금 상승률 추이



자료: Thomson Reuters, 하나증권

Compliance Notice

-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하기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